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6월 16일)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인도만행결사 준비위원회는 7월 27~30일 공주 태화산 일원서 예비순례를 진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참가 대중들이 순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걸음마다 '불교 중흥' 원력 담아…

7월 27~30일 공주 태화산서 예비순례 진행

3일 간 매일 도보로 30km 순례
출재가 순례단 110명 감동 · 환희
원행 스님 "결사 의미 이어지길"
자승 스님 "각자 역할이 곧 원력"
2차 예비순례, 10월 7~27일 예정

공주=송지희 · 노덕현 기자

부처님 숨결 따라 도보로 인도를 순례하는 위례 상월선원의 인도만행결사를 앞두고 예비 순례자들이 공주 태화산 일대에서 원력을 모았다. 인도만행결사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뜻과 의미를 계승해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두 번째 결사다. 인도만행결사 준비위원회는 이번 공주 예비순례에서 결사의 의지를 다진데 이어,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대구 동화사서 서울 봉은사까지 1차 예비순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도만행결사 준비위원회는 7월 27부터 7월 30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공주 예비순례를 진행했다. 첫날 입재식에서 사회를 맡은 상월선원 총도감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좌선정진이었다면 두 번째 인도만행결사는 행선정진"이라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수행원력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비순례 역시 다르지 않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날 입재식은 만행의 의미와 원력을 모으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부터 인도만행결사까지 주축이 된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결사 대중 외에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을 비롯해 전국 15곳 교구본사와 주요사찰 주지 스님 등이 격려를 위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원 결사의 정신이 인도만행결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수행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시는 상월선원 결사대중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원만회향을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공주 예비순례는 입재일과 회향일을 제외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4시부터 한국문화연수원 인근 태화산 일대를 30km씩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예비순례 일정까지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결사라는 점에서 순례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원력만큼은 단단했다.

순례 참가자는 모두 110명. 자원봉사자 스텝을 제외하면 스님 58여 명과 재가자19명 등 76명이 4박5일간 걷기순례에 나섰다. 동참자는 비구, 비구니 스님, 재가자 등 분류에 따라 6개 조로 나눴다.

참가자들은 매일 새벽 3시30분 기상해 3시40분 아침예불 후부터 아침공양 시간까지 걷고, 공양 후 잠시간의 휴식 후 다시 길을 나섰다. 코스는 날씨와 상황에 따라 매일 조금씩 달라졌지만 최소 30km 이상, 많을 때는 35km까지 걷기도 했다. 오후 무렵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각기 숙소에서 쌓인 피로와 상처 등을 치료하고, 때론 자자의 시간을 통해 원력과 의미를 나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례단의 얼굴은 신심과 환희심으로 맑게 빛났지만, 체력 저하로 인한 환자들도 속출했다. 발톱이 빠질 위기에서 응급차로 이송된 스님, 맨발로 아스팔트를 걷다가 엉망이 된 발바닥에 고통 받거나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완주를 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순례자들은 저마다의 원력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고, 그것이 곧 나와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과정 그 자체임을 체득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마지막날인 7월 30일 예비순례 회향을 겸한 자자의 시간을 빌어, 상월선원을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사의 참의미와 불교중흥을 향한 간절한 서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원력이 죽음을 불사할 만큼 간절해야 불교의 미래가 있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임하면 불교 중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 만행결사는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이어 인도 7대 성지를 도보로 순례하겠다는 원력에서 출발했다. 45년간 길 위에서 수행, 전법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초심으로 돌아가 탈종교시대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중흥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애초 올 11월 사부대중과 함께 순례단을 구성, 인도 1050km를 도보로 걷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특집 2 · 3면〉

"천지TV 사과없이 책임 전가 '유감'"

통도사 7월 31일 공식 입장문 발표
해당 영상 삭제… 모니터링은 지속

천지일보 산하 천지TV가 문제가 된 '신앙의 노정 담은 천년고찰 통도사'를 삭제했다. 하지만 통도사가 요구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도사(주지 현문)가 7월 31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천지TV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도사는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6일 사중에서 확인한 촬영물을 보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계약 취지와는 달리 통도사 또는 조계종 소유 명칭 · 이미지 · 브랜드를 자신들의 교리를 소개하는 데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통도사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위반사항에 대해 '계약 위반 사항 및 계약 해지 통지'를 7월 21일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7월 29일 천지일보와 천지TV는 언론보도와 공문을 통해 통도사의 입장에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통도사는 "기독교 교리와 비교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다"면서 "사전에 알았다면 통도사는 촬영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 첫 댓글에 '이 영상은 천지TV 이상면 대표의 개인적 소견을 담았다'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서도 통도사 측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도사는 "이는 천지일보와 천지TV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영상 대부분이 이상면 대표의 설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점에서 볼 때, 영상에 대한 촬영주체로서의 관리와 심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영상 삭제에 대해서 통도사는 "계약 위반의 책임과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아무런 사과표명이 없는 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통도사 측은 "'제작 의도와 달리 일각에서 본 영상을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영상 삭제의 이유는 촬영영상물 자체에 대한 계약상의 문제를 비롯한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한 통도사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발생한 종교 갈등의 이유를 불교계와 언론에 돌리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통도사는 불교계 및 불교언론과 함께 천지일보 · 천지TV의 제작 영상에 대한 관심 있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불교교리와 문화를 왜곡 · 폄훼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 이번 사건과 더불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도사는 7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지일보와 천지일보 산하 천지TV가 사전 취재 계약과 달리 자의적으로 방송 편집해 불교와 스님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도사 측은 "천지일보가 계약서에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명시했지만, 천지TV가 게재한 영상에는 기독교 교리의 숨은 의미를 통도사를 이용해 교묘히 풀어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도 공분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조계종 종평위)은 7월 29일 '천지TV의 불교모욕 행위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종평위는 위원장 도심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천지TV의 '신앙의 노정 담은 천년고찰 통도사'는 표면적으로는 통도사 방문을 통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인 듯 제목을 정했으나 그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성소인 불보사찰 통도사를 '신으로 가는 신앙과정' 정도로 폄훼하는 악의적인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동영상 전체의 시각은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착란적인 자세"라고 힐난했다.

이어 "1800년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신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성소에서 불교를 폄훼하는 등 매우 교묘하고 악질적인 모습으로 종교간 극한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천지TV 측에 동영상 삭제와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천지TV 측은 입장문을 게재하고 7월 30일 오전 7시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하계휴가 관계로 다음 주 신문은 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9월 10일(목) ~ 9월 12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생활 속에서의 주인공 관법 수행
▶승려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전문성 향상
▶포교현장에서 실질적 활용 방안

1일차 (9월 10일 목)	2일차 (9월 11일 금)	3일차 (9월 12일 토)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10월 10일(토) ~ 12월 12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